

온라인수출 배송비 최대 80% 인하

전북중기청, 온라인수출공동물류사업 참여기업 모집 국내·외 물류거점 활용 물류비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 이하 전북중기청)은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의 배송비 합인과 물류창고비용 지원을 위한 2019년도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업은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물류배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물량을 집적해 배송비를 낮추고 국내외 물류 창고를 저렴

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4개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5개 물류사가 수행기관으로 참여한다.

4개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Stone, Qoo10, Japan, Global, Tmall이고 5개 물류사는 (주)두라로지스틱스, (주)큐익스페이스, (주)국제로지스틱, (주)케이씨티시, 엔시터국제운송(주)이다.

전북중기청은 오는 7월 5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은 후, 약 1,200개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온라인수

출 물품 배송비는 정상가의 30~80%까지 상시 할인하고 최대 5개의 물류거점(국내 8개, 해외 13개국 30개중 선택)을 활용하여 수출물품의 보관, 풀릴먼트 서비스, 해외배송, 통관, 수출입신고 등을 실제 소비비용의 70% 한도내에서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외에도 4개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과의 공동 마케팅을 통해, 배너광고, 소셜&컨텐츠 마케팅, 한류마케팅 등의 프로모션도 진행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고베즈코리아(kr.gbiz.go.acm)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전북중기청 김광재 청장은 "온라인 소싱몰의 판매대행 등으로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을 지원중이지만, 내수기업 및 수출초보기업이 온라인 수출에 쉽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물류비 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번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며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지자체 및 수출유관기관 등과 함께 전통적인 제조업 수출지원 중심의 지원사업과 차별화된 B2C 온라인수출 방식의 수출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하춘 수출전문관(063-210-6485)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나눔축산운동 펼쳐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사)나눔축산운동본부·전주김제완주축협(조합장 김창수)은 25일 전주시 삼천동 소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에서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도배 및 장판교체 등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행사에에는 김영일 부분부장, 홍중기 전주완주군지부장, 김창수 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장 및 임직원, 김양수 축산사업단장 등이 참석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에서 숙식제공을 받고 있는 불우 출소자들 생활관 23개소의 낡은 벽지와 장판을 견어내고 최신 벽지와 장판을 교체해 나눔축산운동의 뜻을 실천했다.

김창수 조합장은 "어려운 이웃이 깨끗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축산계에서는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후원을 확대하고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행사를 통해 도움을 받은 거주자들은 "집이 낡고 더러웠었는데 벽지와 장판을 바꿔주니 하룻만에 새집이 된 것 같다"며, 나눔축산운동에 고마움을 전했다.

(사)나눔축산운동은 국민에게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선진 축산업을 만들어 가기 위해 소비자, 농업인,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펼치는 범축산업계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실천운동으로 1% 기부·나눔활동, 소외계층 봉사·후원활동, 경증농가 상생협력활동, 지역사회 환경개선활동 등 각종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스쿨팜' 식체험·금융교실 실시

도시 초등학생들이 무더운 여름 텃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를 수확하여 요리를 만들어 보며 우리 농산물의 중요함을 배우고 있다.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도시 어린이에게 농업가치를 알리기 위해 스쿨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이번 달 2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전주, 익산, 군산 34개교에 각 학교 교실에서 식체험을 진행할 계획이며, 25일에는 익산 육아초등학교(교장 문성원) 6학년 학생 40여명을 농업지역본부로 초대하여 식생활 개선교육과 금융체험을 진행했다.

학교 텃밭에서 직접 재배한 오이, 가지 등을 활용하여 궁중 떡볶이를 만들었고 실제 은행의 모습을 구현한 청소년 금융교육센터에서 1일 농업직원이 되어 통장개설 및 동전 포장하는 시간을 가지고 금고를 견학하며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는 뜻 깊은 체험 시간을 가졌다.

전북농협 유재도 본부장은 "어린이들이 건강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농협의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농업의 소중한 가치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당조고추' 기능성 날개 달고 일본 판매 개시

aT, 수출타진 9년 만에 日 기능성표시식품 등록 쾌거
식후 혈당치 상승억제 기능성 문구 포장지에 표시



한국산 당조고추가 일본 내 수입산으로는 처음으로 일본 기능성표시식품으로 등록되면서 본격적으로 일본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르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강)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한국산 당조고추가 지난 6월 22일부터 일본의 한 대형마트 1 유통업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판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당조고추는 식후 혈당치 상승억제에 뛰어난 국산품종 농산물로서 최초로 지난해 10월 일본현지에서 기능성표시식품으로 등록되었다.

수입산 농식품이 일본 내에서 기능성표시식품으로 등록된 것은 당조고추가 처음이다.

일본은 65세 이상 인구가 30%에 육박하는 초고령화사회로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듯 일본 정부는 2015년부터 기능성표시식품제도를 시행했고 이에 따라 일본에서 유통되는 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하는 기준은 더욱 엄격해졌다.

aT 관계자는 "6월초부터 일본 대형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세일즈활동을 진행했는데, 2주 만에 취급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속속 늘고 있다"면서, "올 3월 동경식품박람회때부터 이미 당조고추의 인기를 예상했다"고 전했다.

지난 2008년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당조고추는 이름 그대로 '당'을 조절해주는 기능성을 지니고 있다. 당조고추에 함유된 루테오린 성분이 당류의 분해와 흡수를 완만하게 하여 식후 혈당치의 상승을 억제하게 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aT는 건강기능성식품 시장의 성장을 주목하고 2011년부터 당조고추의 단계별 수출가능성을 타진해왔다.

일본 국립대학과 연계한 임상시험을 통해 기능성을 검증하여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일본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테스트판매도 실시하여 판매 가능성도 검증했다.

aT는 특히 당조고추에 이른바 '제스프리(Zesfri) 모델'을 적용했다.

과거 파프리카, 딸기 등의 품목에서 경험했던 수출시장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단계부터 생산 및 수출창구를 단일화하고, 일본 내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당조고추의 일본 상품명 '토우쇼초가라시(糖調唐辛子)'를 직접 고안하여 상표권 등록까지 마쳤다.

신현곤 aT 식품수출부장은 "기능성채소의 인기는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등 세계적인 추세로, 한국산 당조고추의 기능성에 모두 주목하고 있다"면서, "수년간의 노력 끝에 기능성식품으로서 수출길을 연 만큼, 제2의 당조고추와 같은 신규 유망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개발공사, 전자대금시스템 전면 확대 시행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발주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자대금시스템이란 임금·하도급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자가 대금지급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임금체불 없는 현장을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도급금액 5,000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넘는 공공공사이다.

특히, 이 제도가 시행되면 건설사가 본인 및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

전북농협, 기금 출연으로 전북경제 활성화 기여

전북농협은 5억 2300만원 출연했다. 이는 도내 금융기관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농협은행 전북본부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과 경영지원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지역 금융기관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김장근 본부장은 "담보력이 미약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기금 출연으로 전북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25일 전북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무)에 임의출연금 5억2300만원을 출연했다고 밝혔다.

출연은 지난 2월 10억원을 특별출연한데 이어 추가출연으로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금년에만 15억 2,300만원을 출연하게 됐다.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2002년부터 매년 전북지역보증재단에 기금을 출연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96억원을

"한국 감말랭이, 대추칩에 반했어요"

aT, 인천 송도서 아태지역 산림주간 연계 임산물 홍보관 운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인천 송도에서 열린 '아태지역 산림주간(Asia-Pacific Forestry Week, APFW) 국제행사장에서 최근 한국 임산물 홍보관을 운영했다.

세계식량기구(FAO)와 산림청이 주관한 행사에는 46개국 정부대표와 국제 NGO단체 등 1500여명이 참여했다.

aT는 밤, 건조감, 대추칩, 표고버섯, 곤드레나물, 산양삼 가공품, 오미자, 북분지쥬스 등 주요 임산물과 임산식품을 홍보하고, 행사기간 중 매일 한국산 임산물을 식재료로 활용한 메뉴를 셰프가 직접 시연하기도 했다.

태국의 파타나자린 씨는 "너무 달지도 않고 인공적인 맛이 덜해서 건강에 좋을 것 같다"며, "특히 감말랭이

와 대추칩은 태국에 없는 생소한 품목이라 구매하고 싶다"며 한국 임산물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aT 관계자는 "우리 임산물의 맛과 식감, 청정 이미지를 알리는 데 주력했다"며, "임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권역별로 맞춤형 홍보채널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